

큰 스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부모 반대에 호적까지 파고 출가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 출가담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은 자가용이 없다. 버스를 타거나 걸어다니며 가람 불사와 포교 불사를 하고 있다.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청주 보살사 사찰 보살들도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가 장을 본다. 한국불교계의 어른으로 수행자의 자세를 견지하는 종산 스님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청주 용암동에 위치한 보타산 보살사는 신라 567년 의신 조사가 창건한 고찰이다. 보살사는 고려시대를 거쳐 송유역불의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 절을 자주가지 않던 사람이라도 보살사 극락보전에서 108배를 올리면 힘들지 않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그 기운이 더해져서일까. 종산 스님은 지금도 하루 한끼만 먹으며 아침, 저녁 예불을 비롯해 가람의 크고 작은 일을 직접 한다. 86세의 세남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종산 스님은 1924년 생으로 일제강점기에 의과대학을 다녔다. 가까운 친구의 죽음 앞에서 육신을 치료

하는 의사의 길에 한계를 느꼈다. 마음의 방향을 겪으며 친구의 49재에 참석했던 스님은 목탁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부모의 반대가 심했다. “출가를 하면 호적을 파라”는 말에 스님은 망설임 없이 호적을 파고 출가를 단행했다. 하지만 그것은 불효의 길이 아니었다. 현생의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보다 만인을 깨우침으로 이끄는 스승이 되려는 큰 분발심이었다.

출가 이후 스님은 대흥사, 만덕사, 보광사, 해인사, 범어사, 천축사 무문관 등 전국선원에서 수행정진했다. 대강백인 용봉 스님에게 경전을 공부했고, 근대 선지식으로 추앙받는 전강 스님으로 선(禪)을 배웠다. 동산 경봉 충성 금봉 청담 해암 스님등 당대 최고 선지식과 함께 수행했다.

스님이 범어사에서 한 ‘대못 수행’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가하면서까지 스님이 이루려 했던 치열한 깨달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스님은 동산 스님이 범어사 조실

로 주석할 때, 세 명의 도반과 함께 잠을 자지 않고 눕지도 않으며 용맹 정진했다. 널빤지 앞에 못을 박아 앞에 세워 두고 잠시라도 졸면 이마에 못이 찔리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수행이었다. 스무 여일이 지나 도반들의 이마에는 피가 나고 굵고 심지어 얼굴 군데군데 피가 엉겨붙어 있었다. 스님의 모습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을 터였지만 도반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게 됐다.

“기가 막힌 모습이었어요. 한편으로 그 치열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세상 모든 스님들 중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나보다 더 공부를 못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 마음 어딘가 깔려있던, 대학공부까지 했다는 자만심이 일순간 사라지고, 대부분, 대의정, 대발심이 일어났어요.”

몇 번을 거쳐 용맹정진한 스님은 문없는 방의 벽을 걷어차고 세상으로 나왔다. 스님은 중병으로 보면 최고 수행자로 추앙받는 종정 다음으로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 전국 유명 선원을 두루 다니며 40여년간 수



행은 했지만 종단의 어떤 직책도 맡지 않았었다. 그 흔한 해외여행 한번 가지 않았다. 호텔에서 잠을 청하지도 않고 원로회의 때도 대중교통으로 서울에 온다. 공양은 보살사에서 가져온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부처님이 설하신 청빈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후학들에게 가르침을 펴고 있는 것이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자유를 향한 자유로운 날개짓, 출가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의 출가를 권하는 글

친구여, 요즘 사는 것이 어떠한가?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활기차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

친구여, 만일 그대가 길을 찾지 못해 고뇌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어쩌면 내가 살고 싶고 나에게 맞는 길이 따로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친구여, 여전히 지구는 넓고 길도 천갈래만갈래이네. 어쩌면 사람 수 만큼 길은 있네.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길은 곳곳에 열려있네. 다만 사람들이 엄연한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믿지 않고 있네. 정말 주체적으로 자기 개성을 살리고 본인이 꼭 살고 싶은 삶을 살았다고 자평한다면 그 길은 어디인가 반드시 열려있네. 따라서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을 못찾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모르고 인생을 모른다는 이야기네. 또는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활짝열고 주체적으로 개성있는 자기 길을 찾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네.

나는 자독하게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났네. 아버지는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네. 열여덟살 때 금산사에 들어가 머리를 깎았네. 지금 돌이켜보면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멍청한 짓 같기도 하지만 참 다행이다 싶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이 길 만큼 좋은 길이 또 있을까 싶네.

이유를 설명해 보겠네. 의식주 문제를 걱정할 일이 없네. 부양가족 문제도 거의 문제가 되지 않네. 절국의 사찰이 모두 내집이네. 지금은 전세제로 무대를 삼을 수도

있을 것인데. 21세기 인류 사회가 주목할 정도로 불교의 사상과 정신이 탁월하네. 인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상과 가치를 추구하네. 나쁜 마음먹고 나쁜 짓만 하지 않는다면 최고의 이상과 가치인 인류의 공동선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네. 얼마나 대단한 조건이며 얼마나 신나는 길인가. 스스로 게으르고 낙약하지만 않는다면 인간에게 주어질 최고의 조건이요, 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네.

친구여, 나는 그 안에서 내 마음껏 살아왔네. 처음에는 의무교육기관 강원에서 경전 공부를 했네. 선원 생활 풍토에 대한 회의가 들었네. 그 때 선원생활을 정리하고 나왔네. 인류가 낳은 최고의 사상 어디인가 반드시 열려있네. 따라서 길을 찾기 위해 생애 자립마음을 공동체 운동, 대안교육 운동, 생명평화 운동을 했다. 그리고 지금은 지리산 사찰들이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실현하는 사찰이 되도록, 지리산 마을과 사회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실현하는 마을과 사회가 되도록 하는 지리산 성지와 운동을 하고 있네.

내가 장황한 설명을 통해 드러내려 하는 본의는 단순 명료하네. 내 역량과 노력이 부족해서 대단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네. 하지만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았네. 내 양

심과 신념에 따라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내 마음껏 살아왔네. 자질구레한 일들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자유롭게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이보다 더 좋은 조건, 이보다 더 훌륭한 길은 매우 드물다고 보네.

친구여, 생각해보게나. 이만하면 한번 마음 내뿜만 하지 않은가? 한 바탕 멋지게 춤을 추어볼만한 멋진 무대가 출가 수행자의 길이라고 여겨지지 않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한 인간에게 주어질 최고의 조건이요, 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네. 편안하게, 쉽게, 적당하게 살겠다고 하는 응졸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절대 마음 내서는 안되네. 적어도 인생을 참되게, 멋지게, 의미있게, 그리고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탐험하겠다는 마음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나서게나. 우리시대, 우리사회가 그런 멋진 수행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참된 수행자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네.

기다리겠네. 언젠가 어디에선가 이 길에서 좋은 친구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겠네. 잘 있거나.



4대 독자였지만...“스님 해봐라” 말에 스님 됐지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 출가담

밀운 스님은 1934년 황해도 연백에서 4대 독자로 출생했다. 4대 독자가 출가한다는 것은 보통 집안에서는 어렵없는 소리였다. 하지만 스님의 부모님들이 불심이 깊었기에 출가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 스님의 부모님은 집 근처 망해사에서 기도 끝에 스님을 낳았다.

밀운 스님은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남달랐다”면서 “어릴적 방학이면 망해사 스님에게 한문을 배웠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때였다. 스님은 1·4 후퇴 이후 고향 황해를 떠나 피난을 왔다. 친척을 따라 서울 노량진에서 살던 밀운 스님은 은사 대오 스님을 만났다. 대오 스님이 “스님이나 한번 해봐라”는 말에 출가를 결심했다. 범명은 부림(佛林). 스님 나이 19세였다.

경북 영주 초암사에서 행자 생활을 했다. 은사 스님은 행자였던 밀운 스님에게 발상까지 손수 들여다 주며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하실 정도였다.

은사 대오 스님은 검소함을 강조한 선방 수좌였다. 밀운 스님은 “은사 스님은 늘 참선과 욕심없는 삶을 강조했다”며 “입적 당시 가위, 돌보기, 실타래, 손톱깎기가 전부였을 정도로 골은 골인 수행자였다”고 회고했다.

이후 스님은 봉선사 운허 스님에게 건당했다. 건당은 계를 준 은사가 아닌 다른 스님의 제자로 임직하는 것이다. 운허 스님은 일생을 팔만대장경 한글 번역에 매진한 근현대 대강백이다. 현재 봉선사 조실인 사령 월운 스님이 스승에게 밀운 스님을

추천하며 건당제자가 됐다. 운허 스님이 지어 준 밀운(密雲)이란 범명도 평소 스님의 남모르는 수행정진 때문이었다.

1954년 스님은 군에 입대했다. 의무병인 스님은 군에서도 계를 지켰다. 저녁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참선을 했다. 은사 스님과 후일 총무원장을 지낸 동암 스님이 면회를 왔다. 포천 동화사 법당에서 동암 스님이 “부처님이 시원찮아”라는 말을 했다.

스님은 ‘부처 중에도 시원찮은 부처가 따로 있나’는 의문이 들었다. 의문을 붙잡고 정진했다. 그리고 한 생각을 얻었다. ‘부처행을 하면 모두 부처’였다. 이후 밀운 스님은 “스님이면 계를 지키며 살아야 스님이고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왔다. 스님은 지금도 부목을 자처한다. 스님이 화장실 청소까지 도맡아 했



을때는 청승보다 ‘홍물 띠다’는 손가락질이 돌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비밀리에 수행정진하는 행은 그칠 줄 몰랐으며, 매일 108배 울려 참선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범종 명가 성종사 국내 최대 1만관 대중 주조 성공

- 국내 범종의 1만관 시대 개막 -

국내 최대종인 화천 세계평화의 종(37.5ton)이 성종사 기술진에 의해 성공리에 주조되었습니다. 화천 평화의 종 공원에 설치되어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상징물로 활용되는 세계평화의 종은 성종사의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에 의해 주조된 국내 최대의 종으로 한국 범종 역사에 길이 남을 문화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혼을 던져야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혹한 부러면 안이야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人間文化財 第112號 梵山 元光植